

생활불교용어



삼매(三昧)는 순수 불교용어로서 좋은 방향으로 생활화했다.

“독서삼매에 들었다”든가 “삼매에 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은 무엇인가를 집중해 하다보면 잡념이 없어지고 그 일의 성취에 초인간적 효능을 본다는 뜻이다.

삼매의 어원은 삼마지(三摩地: samadhi)다. 삼마지란 마음을 한곳에 둔다,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해짐을 삼매라고 한다. 수행이 삼매의 단계에 이르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교는 삼매를 중시한다. 부처님은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의 설법은 삼매에 든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삼매의 상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삼매(三昧)

마음 집중 흐트러짐 없는 경지 부처님 삼매 통해 깨달음 증득

우리에겐 널리 알려져 있는 (법화경)은 부처님이 해인삼매(海印三昧) 속에서 설했다.

해인삼매를 그대로 해석하면 ‘바다도장’의 삼매다. 바다도장의 의미에 대해 어느 경전에서 “바다물은 모든 것을 포섭하는 것 같아서 해인이라고 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경전은 “바다에는 모든 강물이 들어가 평등을 이룸으로 해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보살이 바다와 같이 많이 듣고 그를 토대로 지혜를 성취하고, 부처리한 법을 구해 나가면 마침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를 해인삼매라고 한다”고 해석한 경전도 있다.

이런 경전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삼매는 어느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흐트러짐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삼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온갖 갈등을 용화시켜 언젠가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큰 바다와 같은 것이다.

삼매에 든다는 말의 뜻이 세속에서 쉽게 오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님을 재인식하고 진정한 삼매에 들도록 늘 정진해야 한다.

※ 참고: 안길모음 ‘이관사판 아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천진무구성’ 그대로 키우자

올바른 아동관 「불성설(佛性說)」

종래의 아동관은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아동관인 불성설을 추가 하고자 한다. 불성설이란 말로 아동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고 확신한다. 불성설은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이론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아동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에 네 가지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성선설(性善說)

성선설의 주장자는 맹자(孟子)이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사람이 문득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나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붙든다. 이러한 것에 의하여 살펴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라.

서양사람으로는 루소(Rousseau)가 성선설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에밀(Emile)>이라는 교육론 첫 구절에서 다음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1>



그림 · 이준석

서부터 이익을 좋아함에 있어 그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남과 경쟁을 하게 되고 사양함이 없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질투하고 미워함에 있어 그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성실함과 신의가 없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성(美聲)과 미색(美色)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그러한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무절제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文理)가 없어진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성악설에 입각하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편에 인간의 원죄설(原罪說)을 주장함으로써 성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죄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금단(禁斷)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한 인류 최초의 죄이며 사람은 모두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서 나면서부터 원죄(原罪)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설이다.

성악설에 따르는 교육은 아동을 있는 그대로 키우면 악이 짝뿔하게 되므로 악의 씨앗을 일찍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 유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죄악시한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중심이 되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따라서 금욕, 순종, 엄격, 통제, 지시, 금지가 교육방법에 주류를 이루며 체벌도 유력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인정한다.

중성설(中性說)

중성설의 주장자는 고자(告子)이며 그는 성무성무불선론(性無善無不善論)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杞柳)와 같은 것이고 의(義)는 나무를 휘어 만든 그릇(器)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의(仁義)를 만드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휘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서양사람으로는 존 로크(John Locke)가 중성설을 주장 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유관념(本有觀念)을 부정하고 후천적인 경험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흰 종이의 상태(Tabula rasa) 태어나며 사람 됨됨은 이 종이 위에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암실에 놓여진 흰 종이이며 이 암실에 들어오는 빛이 감각을 통하는 외적경험과 반성을 통하는 내적경험이며 이 경험의 질이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든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중성설은 환경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하

는 교육가능설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어린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키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행동은 외부로부터 자극과 이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에 대한 강화(強化)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인간행동을 환경여하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히 교육가능설이라고 할 만하다.

불성설(佛性說)

나는 불교의 아동관을 불성설(佛性說)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 또는 백지(白紙)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백지를 함께 지닌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고 본다. 즉 인간 본연의 모습인 선, 악, 백지를 함께 지닌 ‘잠재하는 보편적 인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은 인간의 일면만을 본 것에 불과하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성설(佛性說)은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을 절대적 차원에서 통합한 아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또는 그 행동 결과가 선 또는 악의 경험으로 남는지를 개의치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뿐이다. 주위의 비판이나 여건은 어린이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어린이의 행동을 우리는 천진무구(天真無垢)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사량(思量) 분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참된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사(禪師)들의 행동이 어린이 같은 행

성선·성악·중성설 인간의 일면만 본 것 사랑분별 모르는 어린이 선사들과 비슷

어른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표준 어린이 천진무구 해칠 수 있다

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만물 모두 선 하였으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자 만물 모두 타락한다.” 루소는 성인들이 선하게 태어난 아동을 타락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성선설에 따르는 교육의 방법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교육이다. 그래야만 그가 지니고 태어난 선한 마음이 무럭 무럭 자란다. 일체의 억압, 금지, 통제가 없는 자유교육은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이다.

성악설(性惡說)

성악설의 주장자는 순자(荀子)이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 착함은(후천적인 교양이라 할)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이제(생각컨대) 인간의 본성은 태어 나면

Advertisement for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Best of mysterious medicine) featuring 山蔘 (Ginseng).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branch.

Advertisement for '홍화씨' (Red Flower Seed) by Hong Hwa-si. Promotes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mentioning it is a quality product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dvertisement for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Modern Informatio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Features a testimonial from a woman named Lee Young-sook, who found a suitable partner through the institute's services.